

탈레반, 미국에 인도적 원조 받기로

재집권 후 첫 회담 “생산적이었다” 안보·테러·인권·지원 문제 논의 미국 “솔직하고 프로페셔널했다”

탈레반은 9~10일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 후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생산적이었다”, “잘 진행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솔직하고 프로페셔널했다”고 평가했다.

11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탈레반은 8월 15일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처음으로 지난 이틀간 도하에서 미국 측과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안보, 테러, 인권,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탈레반은 외환보유고 동결

해제 등 아프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미국은 아프간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다른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평화협상 준수를 촉구하고, 아직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 등의 안전한 대피 보장을 요구했다.

탈레반은 10일 회담이 끝난 뒤 “도하 회담은 잘 진행됐다”며 “탈레반 정권 인정과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하고 미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사히는 AP통신에 “우리는 아프간 영토가 극단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확신했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력 없이 독립적으로 IS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탈레반을 아

프간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차원의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탈레반 측은 “생산적이었다”(fruitful)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회담이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탈레반 재집권 후 첫 대면 회담은 솔직하고 프로페셔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아프간의 안보와 테러 우려, 미국인과 외국인,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통행권, 여성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보장을 포함한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아프간 국민에게 직접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탈레반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건립 90주년 맞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올해로 건립 90주년을 맞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을 8일(현지시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흥겹던 휴일 술집이 지옥으로...미 무차별 총격전에 15명 사상

말다툼·싸움 없이 갑자기 탕탕탕 1명 사망...경찰, 용의자 3명 체포

미국 미네소타주 한 술집에서 무차별 총격전이 발생해 15명이 총에 맞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휴일인 1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유희가 술집에서 총싸움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손님으로 붐비

던 술집에서 몇몇 사람이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이 사건으로 친구와 함께 휴일을 즐기던 2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술집 손님들은 총격전으로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밝혔다.

손님들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있었으나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술집 바닥과 길거리에서 차례로 쓰러졌다. 술집 디스크자키(DJ) 피터 마잘레스키는

“모든 손님이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있었는데 말다툼이나 싸움 없이 갑자기 ‘탕탕’ 총소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총소리에 놀라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으며 총격이 그치고 일어났을 때 손님들이 총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상자들 가운데 총격전을 벌인 용의자 3명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 치료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해 총격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콜럼버스 아메리카 발견 150년전에 이탈리아 선원들 존재 알고 있었다”

1345년 묘사한 고문서 발견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150년 전에 이미 이탈리아 선원들에게 아메리카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지도·지리 역사 분야 국제학술지 ‘테라에 인코그니타’(Terra Incognita)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파올로 키에사 교수는 밀라노의 가톨릭 수사 갈바네우스 플라미가 1345년에 쓴 라틴어책에서 오늘날의 북미 지역을 지칭하는 문구와 설명을 발견했다.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나온 이 연구 결과는 콜럼버스가 항해에 나서면서 실제로 발견하기를 바란 것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고 학술지는 지적했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날로, 미국은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국경일)로 삼고 있다.

중세 라틴문학 전문가인 키에사 교수가 북미 대륙에 관한 문구를 발견한 고문서는 2013년 발견된 갈바네우스의 에세이집 ‘크로니카 유니버

설리스’(Cronica universalis)다. 밀라노에 살던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인 갈바네우스는 주로 역사적 주제에 관한 라틴어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은 14세기 당시 밀라노 상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키에사 교수는 그의 에세이는 제노바에서 온 선원들이 북미 대륙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에세이에 언급된 지역은 아이슬란드 문헌에 ‘마크랜드’(Markland-Marckalada)로 나오는 곳으로, 학자들은 이곳을 래브라도 또는 뉴펀들랜드 등 북미 대서양 연안으로 보고 있다.

크로니카 유니버설리스는 갈바네우스의 후기 작품 중 하나로 ‘천지창조’부터 그가 살던 시기까지 세계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책으로, 미완성 상태여서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된다.

갈바네우스는 이 에세이에서 항구도시 제노바가 어떻게 새 소식이 유입되는 관문이 됐는지, 유럽 북서쪽 끝에 있는 마르칼라다(Marckalada)에 대한 뱃사람들의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됐는지는 물론 당시 알려져 있던 그린란드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술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연소 지도자’ 오스트리아 총리 낙마

부패 스캔들 검찰 수사망에 사임

“오스트리아가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2017년 만 31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 총리에 오르며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제바스티안 쿠르츠(35)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이같이 사임 계획을 밝혔다.

22세 정계에 입문한 뒤 정치판을 휘어잡는데 성공, ‘원더보이’로 불렸던 그가 끝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최근 터진 부패 스캔들이 결정타가 됐다.

쿠르츠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 극우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된 이후인 2016~2018년 사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며 한 신문에 광고비 명목으로 재무부 자금을 사용한 의

혹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이미 지난 6일 총리실을 포함해 재무부와 국민당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르츠 총리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오스트리아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스스로 총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국가 지도자가 된 쿠르츠 총리의 정치 경력은 누구보다 화려했다.

1986년 8월생인 그는 22세인 2009년 국민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무대에 데뷔했다. 그 후 2년 만인 2011년 내각에 입각한 뒤 내무·외교·국방·재무 등 10개 부처 장관직을 역임했다. 그는 극우 정당인 자유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할 당시 반민

정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지중해 난민 밀입국 폐쇄, 난민 복지 축소 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국 주재 중국대사 CIA 중국조직 신설 비판

진강(秦剛)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중국 전담 조직인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한데 대해 영화 ‘007’ 시리즈를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11일 주미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평황(鳳凰) 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CIA의 중국미션센터 신설 사실과 중국을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

학적 위협”이라고 평가한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자 “가장 심각한 오해와 오판”이라고 답했다. 이어 친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007 같은 냉전 시나리오라면 할리우드에게 넘겨 줘서 블록버스터를 찍어 흥행에 성공하도록 놔두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